

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중심으로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양 관 수

2003년 2월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pils' Democratic Citizenship

- Centering on Pupils in 5th and 6th grade
in Jeju do -

지도교수 고대만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1월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양 관 수

양관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2002년 12월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초록>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중심으로 -

양 관 수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대 만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내 초등학교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도내 초등학교생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 조사를 위해 ‘타인 존중·협동심·신의·준법정신·공익정신·정의감’의 6개 하위 독립변인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도내 초등학교 3개교의 5·6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표집조사된 설문내용은 개인별 특성(성별·학년별·학업성적·용돈액수)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실태와 가정별 특성(부모학력·부모직업·거주지·지역환경·형제수·양육태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실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 의식 6개 하위 영역별 조사 결과 ‘협동심(4.00) > 신의(3.66) > 정의감(3.59) > 타인존중(3.40) > 공익정신(3.30) > 준법정신(3.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은 3.52로써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별 특성에 나타난 시민의식 수준은 ①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은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고 ②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위권인 학생이 하위권인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③ 한 달 용돈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전체 시민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 가정별 특성에 나타난 시민의식 수준은 ① 고학력인 부모를 둔 학생이 ② 부모가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학생이 ③ 문화수준이 높고 큰 지

역에 사는 학생이 ④ 형제수에 따른 결과는 의미가 없으며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가정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가정의 제반 교육적 환경 여건들은 초등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1. 민주주의의 본질과 원리	7
2. 민주 시민의 개념	9
3. 민주시민의식의 내용별 구성 요소	9
4. 선행연구 동향 고찰	16

III. 연구방법

1. 표집대상	18
2. 조사 도구	20
3. 자료처리	23

IV. 조사 결과

1. 타인존중	24
2. 협동심	26
3. 신의	29
4. 준법정신	32
5. 공의정신	35
6. 정의감	38
7. 전체 민주시민 의식	4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45
2. 제언	46

참고문헌	48
------------	----

영문초록	50
------------	----

부 록	52
-----------	----

표 목 차

<표-1>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생활 영역의 내용 체계표	11
<표-2> 개인적 특성	18
<표-3> 가정 특성	19
<표-4> 설문지 구성	21
<표-5> 신뢰도 검증	22
<표-6> 신뢰계수	22
<표-7> 개인 특성별 타인존중	24
<표-8> 가정 특성별 타인존중	25
<표-9> 개인 특성별 협동심	27
<표-10> 가정 특성별 협동심	28
<표-11> 개인 특성별 신의	29
<표-12> 가정 특성별 신의	31
<표-13> 개인 특성별 준법정신	33
<표-14> 가정 특성별 준법정신	34
<표-15> 개인 특성별 공익정신	35
<표-16> 가정 특성별 공익정신	37
<표-17> 개인 특성별 정의감	39
<표-18> 가정 특성별 정의감	40
<표-19> 개인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의식	41
<표-20> 가정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의식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국토 분단에서 야기된 헤아릴 수 없이 많던 역사적 시련을 당했지만, 다행히 우리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무난히 해결하고 발전의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서양 문물의 도입과 함께 전통적인 가치관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갈등,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와의 상충, 전통사회의 의식구조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 사이에 생겨나는 부조화 등은 우리 국민의 가치관과 품위있는 생활의 방향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하여 품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 것이다.

특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주요 부분이며 곧, 정치교육임과 동시에 충효교육이요 바른생활지도 교육으로서 그 시대를 사는 국민의 시대적 갈등 극복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생활이념으로 삼고 민주주의 교육을 주창하여 왔다.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교육이란, 교육받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우리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번영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세계의 다수 국가는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제도로 간주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제도적·법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해 왔으나 아직도 비민주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시민 교육의 형태로 계획·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해방과 함께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그 제도를 수입하여 민주주의를 건국의 이념으로 삼고 모든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면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면을 중시해야 한다. 즉 개인의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규범이 생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된 서구 민주제도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¹⁾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산업의 고도화와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하여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인명경시 풍조, 집단이기주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생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주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정치나 사회적 문제로 파악하였지 생활방식이나 생활원리임을 깨닫지 못하였다.²⁾

더구나 해방 후 50여년간 민주적인 헌법과 교육법에 입각한 교육을 수행하여 왔지만, 아직도 민주 사회 정착을 위한 민주 시민 의식이 결핍된 사회 현상이 돌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인간의 태도 가치관의 육성은 연령이 어릴수록 보다 효과적이므로 가변성이 많은 초등 학교에서의 종합적인 민주 시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한 나라의 미래를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청소년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자 주역으로 장차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의 발달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 사회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는 인간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간을 소비생활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배금주의, 물질만능 주의, 개인 및

1) 신정현 외,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 탐구당, 1987.

2) 정세규, 「국민정신교육의 과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집단이기주의, 사회정의의 부재, 공동체 의식의 결여, 인명 경시 풍조 등 도덕적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가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에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야말로 도덕성을 회복시켜주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성화된 획일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개성을 신장하는 일에도 불충실하며,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는 단순한 인간을 기르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지식위주의 교과지도에 더 치중하고 있어 정의적 영역의 지도, 도덕적 인간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인지 근래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외래문화와 전통문화, 개인과 국가 등의 상대적인 특성을 잘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연구³⁾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민주시민을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나 저해요인들을 밝히는 등 민주시민 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

3) 이영기, 《산업사회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사회과학연구소, 1981.

함으로써

첫째, 도내 초등학교의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둘째, 제주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1)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개념을 내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주사회의 과정들에 익숙해 있으면서 민주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인 일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 민주적 가치, 개인적, 사회적 기능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개념을 축소하여 초등학교생들의 개인, 가정,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민주적 태도에 국한된 의미로 한정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들의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민 교육의 자료를 삼기 위해서 문헌 연구와 의식 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특히, 민주 시민 의식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남(199명), 여(221명) 총 420명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의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끝으로, 연구 조사 방법을 질문지에 의한 방법만을 사용하였기에 질문 지법이 지닌 한계는 이 연구에서 그대로 존재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방향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의 개념을 고찰해 보고 민주 시민 교육의 현실과 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1. 민주주의의 본질과 원리

영국 정치학계의 원로인 Barker 경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우선 인간 정신 활동의 원력이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자신을 인도해 가는 원리이다.⁴⁾ 바꾸어 말하면, 그는 행동 주체로서의 개인의 존중과 개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체 상호간의 행동을 민주주의의 본질로 본 것이다.

Becker 는 민주주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 개념이다. 초기에는 민주주의가 “폭군, 절대주의 지배에 대립되는 민중에 의한 정치 형태”라는 정치 제도적 의미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의회 제도, 선거 제도, 정당 제도 등 정체체계의 측면에서 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고도로 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 오면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는 생활양식으로서의 개념, 도덕적 판단기준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⁵⁾

Dewey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한 양식만이 아닌 사회 생활의 양상이며 공동 경험의 한 양식”으로 정의하고 Saul Padover도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적인 면 뿐 아니라 행동적인 면도 포괄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⁶⁾

따라서 ‘민주’ 라는 의미는 정치 양식 및 생활 양식으로서 제도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4)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5) Becker, Carl L. *Moder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1.

6) 양호민역, 《민주주의의 의미》, 서울 : 탐구당, 1972.

첫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여기에는 개인들의 집단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개인의 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며 동시에 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참여 없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결정에 영향을 줄 참여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셋째, 모든 시민들은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를 갖는다. 민주주의에 참여할 시민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대중 교육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넷째, 변화와 향상이 당연시되는 개방 사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완성되지 않은 과제로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altbounis (한국교육개발원, 1993)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순수 가치를 10가지로 들고 그것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대비시켜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⁷⁾

즉, 민주주의 사회란 정의, 자유, 평등, 다양성, 권위, 사생활보호, 정당한 법적 절차, 참여, 공공성에 대한 개인의 의무, 인간의 기본권리를 기본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인데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이러한 순수 가치들이 타락하게 되면 법 우선주의, 방종, 천편 일률성, 불안정한 다원주의, 개인 제일주의, 범죄자 보호, 다수주의, 소비니즘, 문화 제국주의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가 적어도 그것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가장 유익한 제도이며 이념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시민들에게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고 이념이며 생활양식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완성된 제도, 이념, 생활양식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과제,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7)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가르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이러한 속성 때문인 것이다.

인간의 존중,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 정치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원리로는 입헌주의와 국민 주권, 그리고 권력의 분립을 들 수 있다.

입헌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고, 그 기초는 권력의 분립이며, 그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한 법률로써 해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 계약설과 더불어 국민 주권론을 이론적으로 완성한 이는 Rousseau(1968)이다. 그는 개인적 절대 주권에 반대하면서 절대 주권은 오로지 전체로서의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다. 국민 전체의 권력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전체 국민이 통치자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개인은 개별 의사의 주체로서는 주권자에 대한 복종자로서 피치자의 지위에 있지만, 일반 의사의 구성 부분으로서 주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이중적 지위를 지적하였다.⁸⁾

권력 분립제도는 국가 권력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둬으로써 이런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권력 분립론은 Locke와 Montesquieu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확립되었다. 권력 분립론으로서 Locke의 이권(二權) 분립론, Montesquieu의 삼권(三權) 분립론 외에도 다시 집행권을 통치와 행정으로 구별하여 분립시키는 사권(四權) 분립론이 있고, 타이완의 국민당 헌법과 같이 입법, 행정, 사법, 고시, 감찰의 오권(五權) 분립론도 있다.

2. 민주 시민의 개념

8) Rousseau, J.J. *The Social Contract*. Harmondsworth : Penguin.

일반적으로 「시민」이라는 개념을 협의로는 근대적 시민계급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근대적 시민계급뿐만 아니라 중세 도시 아래의 시민신분을 포괄하여 말하고 있다. 시민 (Citizen)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도시 공동체 혹은 도시국가였던 “Polis”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계층을 의미했으나, 보다 더 근대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은 유럽에서 중세의 봉건적 체제가 근대적인 사회로 변화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⁹⁾ 유럽 사회는 12세기경부터 종래 봉건제도하에서 귀족과는 다른 사회 계층 즉, 상업계층들이 출현하는데서 새로운 사회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김동일은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 18세기 미국의 독립 혁명, 특히 프랑스의 민주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인간은 법에 의해서만 지배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회 즉, 시민사회를 이룩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다.¹⁰⁾

이러한 시민들은 자유권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권에는 시민적 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적 요소는 주로 개인의 자유를 확립시키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고, 정치적 요소는 정치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회적 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복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교육제도와 사회적 서비스 같은 제도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민석홍(1966)은 시민 사회란, 정치면에서 ①근대적 국민 국가의 형성 ②민주주의의 발달 ③시민 계급의 정권 담당 ④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와 시민권 개념의 발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정치 사회 면에서 ①새로운 기술과 기계 도입으로 급격한 생산력의 증가 ②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③시민 계급의 성장과 시민생활의 발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획일적인 문화 형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내용과 자유로운 형식의 문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¹¹⁾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 사회에서 시민이란 곧, 민주 시민을 말한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

9)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10) 김동일, 《시민 사회의 문화적 기초》, 한국사회학, 제20집, 1986.

11) 민석홍, 《시민 사회 성립 과정과 의의》, 사상계, 1966.

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세구는 민주적 인간을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수결 원칙을 이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자유를 올바르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책임을 완수하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 원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되 우리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서구의 민주적 원리와 조화시켜 민주적 의식과 생활 양식을 체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미국의 Freeman Butts(한국교육개발원, 1993)는, 미국 사회에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로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실, 애국심, 자유, 다양성, 사생활 존중, 절차 이행, 재산, 인권을 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시민의 의무가 부패될 때 법과 질서의 강요, 획일 강요, 순응, 권위주의, 전세주의, 다수 횡포, 허위, 채국주의(국수주의)로 나타날 수 있고 시민의 권리가 부패되었을 때 인권에 우위가 되며 문화적 식민주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민주 시민이란,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개념을 내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한 민주 사회의 과정들에 익숙해 있으면서 민주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들을 조화 시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 민주적 가치, 개인적 사회적 기능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민주시민의식의 내용별 구성 요소

1) 초등학교 도덕과 민주시민생활 규범 선정 배경

오늘날의 교육현실을 여러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12) 정세구, 《국민정신 교육의 과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5.

13)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데 필요한 도덕교육 즉, 덕성 교육적 측면이 거의 부재현상에 이르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도덕과에 시민생활 영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규범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정된 규범들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도덕과 교육은 도덕적 원리나 규범들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왔다는 점이다.¹⁴⁾ 이러한 개인 윤리적인 시각은 점차 교류가 빈번해지고 관련성이 점점 증가되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¹⁵⁾ 민주사회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다양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기와 다른 취미나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종래의 교육과정이 수동적인 시민을 기른다는 비판을 받았음에 감안하여 자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은 단지 수행해야 할 의무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자유 민주주의 사회 곧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자유경쟁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은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 그리고 의욕을 제공해주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어 경쟁과 함께 협동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민주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의 풍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는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팽배, 지역 및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 심화,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소외계층의 증가, 사회 문화적 권위의 붕괴에 따른 규범적 통제력의

14) 정용술,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자》 한국민주시민교육 연구회보, 제14호, 1991.

15) 문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4.

약화 등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아 국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강화하였다.

넷째, 민주사회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 및 평등의 문제는 오늘날 윤리학 및 사회철학의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의 의미는 단순한 “평등”의 의미는 아니며, 주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같이 원리적인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사회정의에 기여하는 바가 의심스럽다는 주장과 함께 “실질적 평등”이니 “분배적 정의”니 하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주장들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배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2) 초등학교 도덕과 민주시민생활 관련 과목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저학년의 바른생활과에서 배운 기본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성 형성의 기초를 다지며 사회 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 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시민생활 영역의 주요 지도 요소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민주시민생활 영역의 내용 체계표

관련덕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민주시민생활	신의	약속이행	/	정직한 생활	/
	준법	거리교통질서	예절과 질서	/	법과 규칙
	타인존중	타인이해	차별 안하기	타인이의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합심 단결	경쟁과 협동	시민 협동	봉사하는 마음
	공익	공공시설	공중 도덕	공익 추구	공익과 사회
정의		공정한 행동	정의감과 용기	민주사회	정의사회

(1) 타인존중

민주주의 사회는 각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사람들의 욕구와 의견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어 분출된다.

이럴 경우 흔히 다수의 의견을 쫓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수결 원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좋은 점은 수용되어야 하며 다수결 근본정신은 평등의 이념과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¹⁶⁾

(2) 협동

란트만(M. Landmann)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은 너무 일찍 모태로부터 출생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출생시부터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이며, 또한 다른 포유동물들과 달리 늙어 죽을 때까지 사회의 동료들로부터 계속하여 배워가야만 하는 존재이다.¹⁷⁾ 협동은 인간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해 가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동하는 슬기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히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능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협동이 강요되거나 맹목적인 것이 되면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사회로 퇴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바탕 위에서 자발적으로 도와갈 때 자연스러운 협동의식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흐뭇함을 맛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① 협동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신뢰한다.

② 협동은 자신의 최대 이익에 대한 탐욕을 억누르고 공동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이상을 머금고 있다.

16)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6-1》,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17) 김태훈, 《덕 교육론》, 서울: 양서원, 1999.

③ 협동은 우리가 모두 하나로 얽혀있다는 연대의식이 그 밑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협동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충직하다.

④ 협동은 공동선(common good)의 성취를 가능케 해준다.¹⁸⁾

(3) 신의

신의는 밝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이 바르게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직, 믿음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규범이 없이는 어느 하나도 바르게 정립될 수 없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시대를 흔히 불안의 시대, 또는 불신의 시대라고도 한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또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불신을 극도의 개인주의에 의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불신과 불안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사회에는 이웃과 이웃간에 서로 믿고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밝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할 때 의심이 짙고 의심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속에서 서로 믿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불신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도움은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맺어진 결속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¹⁹⁾

18) 김태훈, 《덕 교육론》, 서울 : 양서원, 1999.

19)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5-1》,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4) 준법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는데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 도덕규범, 관습등이 있다. 종교규범은 인간의 신앙심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앙심이 약해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규범이 무력해진다. 도덕규범은 인간의 양심을 발동시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떳떳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을 지켜왔으며, 이 규범들이 관습이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이 무력해지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관습도 무너지게 된다. 이럴 때 그 사회규범을 강제를 써서라도 지키게 할 필요가 생긴다. 이처럼 어떠한 사회규범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경우에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령이나 법규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명령이나 법규가 개인의 양심에 의하여 도덕적 의무 부과와 힘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더욱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기 싫은 것처럼 남도 나에게서 피해를 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속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도덕, 규칙, 법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²⁰⁾

(5) 공익

공익이란 일반 사회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익 즉 사익에 상대되는 말이다. 우리는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사리사욕을

20)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5-1》,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버리고 공동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공동사회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좁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학급, 학교 나아가서는 향토사회, 국가 일 수도 있다. 그 어느 사회든 내가 개인으로서 거기에 속하고 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을 앞세운다는 말은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전체이익을 생각함을 뜻한다. 한편, 공덕심이란 공익을 위하는 도덕적 태도로서 공익과 서로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하는 행동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속에서 차례와 질서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생활을 위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며,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애호라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고도의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타인의 입장이나 이익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타인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된다면, 그 병폐는 극심할 것이며 결국 사회의 일반적 공덕심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사회가 지탱, 유지 발전되려면 때로는 개인의 이익도 공익을 위해서는 일부 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덕심의 함양을 통해 스스로 조화를 창출해 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²¹⁾

(6) 정의

자연계나 인간의 세계는 모두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질서에는 자연질서와 사회질서가 있다. 자연질서는 인간의 의지와 소망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며 없어지기도 하는 소위 인위적 질

21)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5-1》,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서이다.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의 근본적 차이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의해 생긴다. 인간사회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 즉, 정의가 존재한다. 정의는 인간을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정의라고 하며 이는 모든 사회질서의 근본이 된다. 이러한 사회질서에서는 한 개인이 고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재능, 개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거나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에 있게 된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타인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증대에 기여하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정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며 공동복지의 실현을 보장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의롭고 정직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정의로워야 함을 깊이 깨닫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매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여야 한다.²²⁾

4. 선행연구 동향 고찰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도 교육의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군정에 의해 사회과가 도입된 해방 직후의 일이라고 하였다.²³⁾ 그 당시는 사회과라는 외래도입 교과서에 의해서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자주적인 연구 실적도 미비한 상태였다.

시민 교육에 대하여 주체적 입장에서 자주적인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 때는 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은 무엇이고 민주 시민이란 무엇인가? 하는 원론 정립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교과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정치 교육, 경제 교육, 사회 ·

22) 교육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5-1》,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23) 정경진,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2.

문화 교육, 혹은 사회과, 도덕과, 국민 윤리과의 민주 시민 교육 등 주로 각 교과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어떤 목표 하에 어떤 내용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사회과 내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별 연구 -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에 따른 내용 연구, 그리고 교육 방법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60년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념과 목표에 관한 연구의 경우 시민 정신 교육으로서 민주 시민 교육과 국민 정신 교육으로서의 민주 시민 교육의 갈등, 다시 말해서 개인 주체성의 강조와 강조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혼란한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민주 시민 교육은 국민 정신 교육의 방향으로 추구되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설정에 관련된 학위 논문으로는 정경진의 “민주 시민 교육의 현황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1992), 김성희의 “중·고생의 민주적 성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88), 정수원의 “우리 나라 민주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9), 김윤희의 “초등학교 민주 시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1991), 김창식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민주 시민 자질 육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권오갑의 “초등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2001), 고창근의 “초등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2000) 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표집대상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걸쳐 제주도 시지역(제주시), 읍지역(대정읍), 면지역(안덕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중 부모가 모두 있는 420명(남 199명, 여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 개인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99	47.38
	여	221	52.62
학년	초등학교 5학년	273	65.00
	초등학교 6학년	147	35.00
성적	상위권	71	16.90
	중상위권	107	25.48
	중위권	168	40.00
	중하위권	56	13.33
	하위권	18	4.29
용돈	5천원 미만	160	38.10
	5천원-1만원	101	24.05
	1만원-2만원	101	24.05
	2만원 이상	58	13.81
계		420	100.0

먼저 조사대상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7.38%, 여학생이 52.62%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65.00%, 6학년이 35.00%, 성적별로는 상위권이 16.90%, 중상위권이 25.48%, 중위권이 40.00%, 중하위권이 13.33%, 하위권이 4.29%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로는 5천원 미만이 38.10%, 5천원-1만원과 1만원-2만원이 각각 24.05%, 2만원 이상이 13.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 688부의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설문조사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응답이 좋지 않은 자료에 대해 1차 선별 작업을 통하여 자료를 처리하다 보니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조사자료가 5학년에 비해 적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다.

< 표-3 > 가정 특성

구분		N	%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5.00
	고등학교 졸업	173	41.19
	대학교 졸업 이상	226	53.81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6.67
	고등학교 졸업	243	57.86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5.48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15.71
	자영업	126	30.00
	전문사무직종	151	35.95
	기타	77	18.33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10.71
	자영업	105	25.00
	전문사무직종	77	18.33
	가정주부	143	34.05
	기타	50	11.90
거주지역	시	231	55.00
	읍	144	34.29
	면	45	10.71
지역환경	도시	231	55.00
	농촌	145	34.52
	어촌	44	10.48
형제자매 수	1명	24	5.71
	2명	233	55.48
	3명	128	30.48
	4명 이상	35	8.33
양육 태도	일방적	31	7.38
	방관적	40	9.52
	협력적	292	69.52
	전적 신뢰	57	13.57
계		420	100.0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53.81%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7.86%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대학교 졸업 이상이 35.48%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35.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이 30.0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34.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 25.00%,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18.33%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보면 시 지역 거주자가 55.00%이고 읍, 면 거주자가 각각 34.29%, 10.71%로 나타났다. 지역환경은 도시 55.00%, 읍, 면이 각각 34.52%와 10.48%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수를 보면 1명이 5.71%, 2명이 55.48%, 3명이 30.48%, 4명 이상이 8.33%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협력적인 태도가 69.52%로 가장 높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13.57%, 방관적인 태도가 9.52%, 일방적인 태도가 7.3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 688부의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설문조사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응답이 좋지 않은 자료에 대해 1차 선별 작업을 통하여 자료를 처리하다 보니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거주지역과 읍 거주지역에 비해 면 거주지역의 자료가 부족하여 거주지역에 관한 분석을 시 거주지역과 읍면 거주지역의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지역환경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도덕과교육과정을 중심으로하여 개발한 이영희²⁴⁾의 민주시민의식 조사 도구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민주시민 의식은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의정신, 정의감의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24) 이영희, 《국민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표-4>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설 문 내 용	번호
조사 대상자의 특성		* 개인특성별 : 성별 · 학년 · 학업성적 · 매월 용돈 액수 * 가정특별성 : 부모학력 · 부모직업 · 거주지역 · 지역환경 · 형제수 · 양육태도	1-4 5-10
초 등 학 생 의 민 주 의 식	타인존중	*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 학급회의를 할 때,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 나는 공부 못하거나 약한 친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과 이야 기를 나누어 해결한다. *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17 20 24 32 35
	협 동 심	*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힘을 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다. * 나는 가족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 주려고 한다.	13 22 26 36
	신 의	*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돌려 준다. * 아무리 양심적으로 물건을 팔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책임을 진다.	11 15 19 34
	준법정신	* 우리사회에서 정한 법과 규칙은 지켜야 한다. * 나는 교통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나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 나는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 수거를 한다. * 나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린 적이 있다.	12 16 27 29 33
	공익정신	* 나는 공원에 놀러가서 놀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운다. * 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 나는 도서관, 식당,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한다. * 나는 학교의 모든 물건은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겨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18 23 28 30
	정 의 감	* 운동경기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정정당당히 경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나는 친구가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한다. * 나는 자라서 이웃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지적해주거나 충고해 준다. * 친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참지 못 한다.	14 21 25 31 37

우선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문항 1,2,3,4)과 가정적인 특성(문항 5, 6, 7, 8, 9, 10)을 나타내는 문항에 표기를 끝낸 후, 민주시민 의식을 나타내는 6개의 하위영역(문항 11번부터 37번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6개 영역의 전체적인 점수는 전체 민주시민 의식을 의미하며 각 문항의 정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개의 범주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각 문항 당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의 경우는 그 역으로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2) 신뢰도 검증

본 연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5 > 신뢰도 검증

구 분	신뢰 계 수
민주시민 의식	0.833455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는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의정신, 정의감의 전체 신뢰계수는 0.833455로 나타났다.

다음 <표-6 >은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는 개념들을 삭제하는 경우의 신뢰계수이다.

<표-6 > 신뢰계수

구 분	문항 수	신뢰 계수
타인존중	5	0.806154
협동심	4	0.800950
신의	4	0.815207
준법정신	5	0.812060
공의정신	4	0.804477
정의감	5	0.800163

타인존중 개념이 삭제되는 경우 신뢰계수값이 0.806154로 민주시민 의식의 신뢰계수 0.833455 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인존중 개념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 정의감에 대해서도 삭제하는 경우 민주시민 의식의 신뢰계수 값보다 떨어지게 되므로 삭제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하위개념인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 정의감을 사용하여도 분석의 결과가 타당함을 보여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알아보는 연구로서 이를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민주시민 의식의 6개 하위 독립변인에 대해서 독립표본 t 검증과 F 검증을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며 자료의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IV. 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에서 지도하는 민주시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영역을 타인 존중, 협동, 신의, 준법정신, 공익, 정의의 6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각 부문별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존중

타인존중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표-7> 개인 특성별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3.33	0.59	-2.41*	0.0163
	여	221	3.47	0.59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3.37	0.58	-1.43	0.1523
	초등학교 6학년	147	3.46	0.61		
성 적	상위권	71	3.67	0.56	6.95***	0.0001
	중상위권	107	3.47	0.53		
	중위권	168	3.33	0.62		
	중하위권	56	3.21	0.54		
	하위권	18	3.16	0.64		
용 돈	5천원 미만	160	3.41	0.56	0.22	0.8855
	5천원-1만원	101	3.41	0.59		
	1만원-2만원	101	3.36	0.62		
	2만원-3만원	39	3.39	0.60		
계		420	3.40	0.59		

* $p<.05$, *** $p<.001$

성별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t=-2.41$, $p<.05$),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 존중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는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타인 존중 의식이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성적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F=6.95$, $p<.0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타인 존중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타인 존중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8> 가정 특성별 타인 존중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3.42	0.64	1.51	0.2226
	고등학교 졸업	173	3.34	0.57		
	대학교 졸업 이상	226	3.45	0.60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3.32	0.57	0.46	0.6333
	고등학교 졸업	243	3.40	0.58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43	0.62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3.43	0.57	0.37	0.7768
	자영업	126	3.41	0.61		
	전문사무직종	151	3.41	0.58		
	기타	77	3.34	0.62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33	0.55	2.09	0.0812
	자영업	105	3.36	0.58		
	전문사무직종	77	3.44	0.64		
	가정주부	143	3.49	0.60		
	기타	50	3.24	0.55		
거주지역	시	231	3.47	0.60	2.45*	0.0147
	읍·면	189	3.32	0.57		
지역환경	도시	231	3.46	0.61	2.08*	0.0380
	농·어촌	189	3.33	0.57		
형제자매 수	1명	24	3.33	0.68	0.16	0.9237
	2명	233	3.41	0.62		
	3명	128	3.40	0.55		
	4명	35	3.42	0.49		
양육 태도	일방적	31	3.26	0.53	5.53***	0.0010
	방관적	40	3.09	0.60		
	협력적	292	3.43	0.57		
	전적 신뢰	57	3.52	0.66		
계		420	3.40	0.59		

* $p<.05$ *** $p<.001$

아버지 학력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타인 존중 의식이 높은 경향은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 직업에서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타인 존중 의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에서는 가정주부와 전문사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타인 존중 의식이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역별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를 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타인 존중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t=2.45$, $p<.05$)

지역환경별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 지역환경이 농·어촌 지역환경보다 타인 존중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t=2.08$, $p<.05$)

형제자매 수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타인 존중 의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태도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F=5.53$, $p<.001$) 부모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협력적인 경우 높은 타인 존중 의식을 보이고, 일방적이거나 방관적인 경우 낮은 타인 존중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2. 협동심

협동심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표-9> 개인 특성별 협동심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4.00	0.61	0.13	0.90
	여	221	4.00	0.64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4.00	0.62	-0.42	0.68
	초등학교 6학년	147	4.02	0.65		
성 적	상위권	71	4.19	0.61	7.26***	0.0001
	중상위권	107	4.11	0.61		
	중위권	168	3.99	0.60		
	중하위권	56	3.75	0.64		
	하위권	18	3.60	0.62		
용 돈	5천원 미만	160	4.08	0.57	1.89	0.13
	5천원-1만원	101	4.02	0.65		
	1만원-2만원	101	3.92	0.65		
	2만원-3만원	39	3.91	0.69		
계		420	4.00	0.63		

*** $p < .001$

성별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협동심 의식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학년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협동심 의식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성적에 따른 협동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F=7.26$, $p<.0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협동심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협동심 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10> 가정 특성별 협동심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4.08	0.42	2.79	0.0626
	고등학교 졸업	173	3.91	0.66		
	대학교 졸업 이상	226	4.06	0.61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4.03	0.59	2.86	0.0585
	고등학교 졸업	243	3.94	0.63		
	대학교 졸업 이상	149	4.09	0.62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4.09	0.63	2.13	0.0954
	자영업	126	3.96	0.62		
	전문사무직종	151	4.06	0.61		
	기타	77	3.88	0.66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98	0.61	0.76	0.5528
	자영업	105	4.01	0.66		
	전문사무직종	77	4.11	0.55		
	가정주부	143	3.96	0.62		
	기타	50	3.98	0.68		
거주지역	시	231	4.02	0.63	0.81	0.4204
	읍·면	189	3.98	0.62		
지역환경	도시	231	4.02	0.64	0.49	0.6233
	농·어촌	189	3.99	0.61		
형제자매 수	1명	24	3.86	0.61	0.97	0.4081
	2명	233	4.04	0.64		
	3명	128	3.96	0.60		
	4명	35	4.08	0.61		
양육 태도	일방적	31	3.73	0.72	3.94**	0.0086
	방관적	40	3.81	0.74		
	협력적	292	4.06	0.60		
	전적 신뢰	57	4.03	0.55		
계		420	4.00	0.63		

** p<.01

아버지 학력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 직업에서는 판매 기술직, 전문사무직중에 종사하는 경우 협동심 의식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어머니 직업에서는 전문사무직중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협동심 의식이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역별 협동심 분석결과와 지역환경별 협동심 분석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역과 지역환경에 따라 협동심 의식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협동심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형제자매가 적은 경우보다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협동심 의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태도에 따른 타인 존중 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F=3.94, p<.01$) 부모가 협력적이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높은 협동심 의식을 보이는 반면, 방관적이거나 일방적인 경우 낮은 협동심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3. 신의

신의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평균은 3.66으로 나타났다.

<표-11> 개인 특성별 신의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3.59	0.68	-1.90	0.0576
	여	221	3.71	0.63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3.75	0.64	4.02***	0.0001
	초등학교 6학년	147	3.48	0.66		
성 적	상위권	71	3.91	0.73	9.75***	0.0001
	중상위권	107	3.74	0.63		
	중위권	168	3.65	0.60		
	중하위권	56	3.30	0.65		
	하위권	18	3.23	0.51		
용 돈	5천원 미만	160	3.65	0.63	0.24	0.8716
	5천원-1만원	101	3.62	0.63		
	1만원-2만원	101	3.69	0.70		
	2만원-3만원	39	3.68	0.72		
계		420	3.66	0.66		

*** $p<.001$

성별에 따른 신의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신의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t=-1.90$, $p=.0576$)

학년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t=4.02$, $p<.0001$) 이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비해 신의 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신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F=9.75$, $p<.0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신의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타인 존중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12> 가정 특성별 신의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3.52	0.62	6.40**	0.0018
	고등학교 졸업	173	3.53	0.63		
	대학교 졸업 이상	226	3.76	0.67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3.55	0.56	4.11*	0.0171
	고등학교 졸업	243	3.59	0.65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78	0.68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3.65	0.66	3.38*	0.0183
	자영업	126	3.57	0.68		
	전문사무직종	151	3.78	0.63		
	기타	77	3.56	0.64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60	0.67	1.97	0.0976
	자영업	105	3.60	0.68		
	전문사무직종	77	3.84	0.68		
	가정주부	143	3.64	0.63		
	기타	50	3.57	0.63		
거주지역	시	231	3.76	0.67	3.62***	0.0003
	읍·면	189	3.53	0.63		
지역환경	도시	231	3.76	0.66	3.66***	0.0003
	농·어촌	189	3.62	0.63		
형제자매 수	1명	24	3.66	0.66	0.11	0.9539
	2명	233	3.64	0.66		
	3명	128	3.68	0.67		
	4명	35	3.64	0.64		
양육 태도	일방적	31	3.30	0.59	5.64***	0.0008
	방관적	40	3.45	0.69		
	협력적	292	3.70	0.64		
	전적 신뢰	57	3.79	0.66		
계		420	3.66	0.66		

* p<.05 ** p<.01 *** p<.001

아버지 학력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F=6.40, p<.0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의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F=4.11, $p<.05$)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의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신의 의식도 높아짐을 시사해 준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F=3.38 $p<.05$)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의 경우 신의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직업에서는 비슷한 신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 직업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의 경우 다소 높은 신의 의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별 신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t=3.62$, $p<.001$).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신의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환경별 신의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 지역환경이 농·어촌 지역환경보다 신의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t=2.08$, $p<.05$)

형제자매 수에 따른 신의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태도에 따른 신의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F=5.64, $p<.001$) 부모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협력적인 경우 높은 신의 의식을 보이고, 방관적이거나 일방적인 경우 낮은 신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4. 준법정신

준법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평균은 3.18으로 나타났다.

<표-13> 개인 특성별 준법정신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3.13	0.57	-1.56	0.1186
	여	221	3.23	0.62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3.23	0.58	2.17*	0.0305
	초등학교 6학년	147	3.20	0.63		
성 적	상위권	71	3.33	0.68	3.59**	0.0069
	중상위권	107	3.19	0.63		
	중위권	168	3.21	0.54		
	중하위권	56	2.97	0.51		
	하위권	18	2.96	0.70		
용 돈	5천원 미만	160	3.24	0.60	1.03	0.3788
	5천원-1만원	101	3.11	0.61		
	1만원-2만원	101	3.16	0.59		
	2만원-3만원	39	3.19	0.60		
계		420	3.18	0.60		

* $p < .05$ ** $p < .01$

성별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t=2.17$, $p < .05$) 이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비해 준법정신 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는데($F=3.59$, $p < .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준법정신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준법정신 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14> 가정 특성별 준법정신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3.05	0.48	2.51	0.0827
	고등학교 졸업	173	3.12	0.59		
	대학교 졸업 이상	226	3.24	0.61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3.04	0.47	2.17	0.1149
	고등학교 졸업	243	3.15	0.59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26	0.64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3.13	0.61	1.53	0.2050
	자영업	126	3.13	0.61		
	전문사무직종	151	3.26	0.60		
	기타	77	3.16	0.58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11	0.44	1.17	0.3226
	자영업	105	3.10	0.67		
	전문사무직종	77	3.27	0.52		
	가정주부	143	3.22	0.66		
	기타	50	3.19	0.50		
거주지역	시	231	3.26	0.64	3.13**	0.0015
	읍·면	189	3.16	0.53		
지역환경	도시	231	3.26	0.64	3.03**	0.0022
	농·어촌	189	3.09	0.53		
형제자매 수	1명	24	3.18	0.59	0.33	0.8017
	2명	233	3.20	0.61		
	3명	128	3.14	0.58		
	4명	35	3.22	0.62		
양육 태도	일방적	31	2.85	0.60	8.28***	0.0001
	방관적	40	2.89	0.57		
	협력적	292	3.25	0.58		
	전적 신뢰	57	3.20	0.59		
계		420	3.18	0.60		

* p<.05 ** p<.01 *** p<.001

아버지 학력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 모두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준법정신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준법정신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와 어머니 직업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 결과 모두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의 경우 준법정신 의식이 다소 높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과 가정주부의 경우 준법정신 의식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별 준법정신 분석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t=3.13$, $p<.01$).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준법정신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환경별 준법정신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 지역환경이 농·어촌 지역환경보다 준법정신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t=3.03$, $p<.01$)

형제자매 수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태도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F=8.28$, $p<.001$) 부모가 협력적이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높은 준법정신 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방관적이나 일방적인 경우 낮은 준법정신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5. 공익정신

공익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평균은 3.30으로 나타났다.

<표-15> 개인 특성별 공익정신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3.26	0.67	-0.96	0.3393
	여	221	3.33	0.68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3.35	0.74	1.98*	0.0482
	초등학교 6학년	147	3.20	0.73		
성 적	상위권	71	3.57	0.80	3.66**	0.0061
	중상위권	107	3.30	0.74		
	중위권	168	3.25	0.73		
	중하위권	56	3.18	0.65		
	하위권	18	3.01	0.60		
용 돈	5천원 미만	160	3.31	0.72	0.34	0.7983
	5천원-1만원	101	3.25	0.78		
	1만원-2만원	101	3.27	0.73		
	2만원-3만원	39	3.37	0.75		
계		420	3.30	0.74		

* $p<.05$ ** $p<.01$

성별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t=1.98$, $p<.05$) 이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비해 공익정신 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F=3.66$, $p<.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공익정신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공익정신 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16> 가정 특성별 공익정신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3.30	0.77	1.46	0.2326
	고등학교 졸업	173	3.23	0.70		
	대학교 졸업 이상	226	3.35	0.78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3.13	0.60	2.41	0.0915
	고등학교 졸업	243	3.26	0.71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39	0.80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3.37	0.71	0.90	0.4418
	자영업	126	3.24	0.72		
	전문사무직종	151	3.34	0.78		
	기타	77	3.22	0.71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38	0.67	2.47*	0.0442
	자영업	105	3.20	0.78		
	전문사무직종	77	3.44	0.67		
	가정주부	143	3.34	0.78		
	기타	50	3.09	0.64		
거주지역	시	231	3.36	0.76	1.77	0.0783
	읍·면	189	3.30	0.74		
지역환경	도시	231	3.35	0.76	1.60	0.1109
	농·어촌	189	3.34	0.71		
형제자매 수	1명	24	3.11	0.79	0.81	0.4893
	2명	233	3.33	0.73		
	3명	128	3.29	0.74		
	4명	35	3.22	0.80		
양육 태도	일방적	31	3.00	0.70	3.27*	0.0213
	방관적	40	3.11	0.64		
	협력적	292	3.33	0.76		
	전적 신뢰	57	3.40	0.69		
계		420	3.30	0.74		

* $p < .05$

아버지 학력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결과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공익정신 의식이 다소 높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아질

수록 공익정신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결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F=2.47, p<.05$)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의 경우 다소 높은 공익정신 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판매 기술직과 가정주부의 경우에서도 조금 높은 공익정신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역별 공익정신 분석 결과와 지역환경별 공익정신 분석 결과에서는 둘다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지역과 지역환경에 따라 공익정신 의식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익정신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태도에 따른 준법정신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F=3.27, p<.05$) 부모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협력적인 경우 다소 높은 공익정신 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방관적이나 일방적인 경우 낮은 공익정신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6. 정의감

정의감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평균은 3.59으로 나타났다.

<표-17> 개인 특성별 정의감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3.56	0.64	-0.82	0.4110
	여	221	3.61	0.64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3.60	0.63	0.63	0.5267
	초등학교 6학년	147	3.56	0.67		
성 적	상위권	71	3.86	0.64	5.50***	0.0003
	중상위권	107	3.63	0.56		
	중위권	168	3.53	0.64		
	중하위권	56	3.46	0.62		
	하위권	18	3.28	0.81		
용 돈	5천원 미만	160	3.59	0.58	0.12	0.9503
	5천원-1만원	101	3.58	0.60		
	1만원-2만원	101	3.62	0.71		
	2만원-3만원	39	3.56	0.73		
계		420	3.59	0.64		

*** $p < .001$

성별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와 학년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정의감 의식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는데($F=5.50$, $p < .0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정의감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정의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정의감 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18> 가정 특성별 정의감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3.64	0.45	1.75	0.1747
	고등학교 졸업	173	3.52	0.67		
	대학교 졸업 이상	226	3.64	0.63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3.54	0.47	0.79	0.4524
	고등학교 졸업	243	3.56	0.65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64	0.65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3.61	0.61	0.47	0.7010
	자영업	126	3.55	0.66		
	전문사무직종	151	3.63	0.64		
	기타	77	3.56	0.64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57	0.57	2.12	0.0778
	자영업	105	3.56	0.64		
	전문사무직종	77	3.72	0.59		
	가정주부	143	3.61	0.68		
	기타	50	3.40	0.63		
거주지역	시	231	3.59	0.67	0.07	0.9405
	읍·면	189	3.67	0.60		
지역환경	도시	231	3.59	0.67	-0.04	0.9679
	농·어촌	189	3.68	0.60		
형제자매 수	1명	24	3.55	0.58	2.38	0.0691
	2명	233	3.62	0.65		
	3명	128	3.48	0.63		
	4명	35	3.77	0.61		
양육 태도	일방적	31	3.24	0.74	8.92***	0.0001
	방관적	40	3.25	0.80		
	협력적	292	3.65	0.58		
	전적 신뢰	57	3.72	0.61		
계		420	3.59	0.64		

*** $p < .001$

아버지 학력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와 어머니 학력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 모두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와 어머니 직업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과 판매 기술직의 경우 정의감 의식이 다소 높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과 가정주부의 경우 정의감 의식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별 정의감 분석 결과와 지역환경별 정의감 분석 결과에서는 둘다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지역과 지역환경에 따라 정의감 의식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정의감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태도에 따른 정의감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F=8.92$, $p<.001$) 부모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협력적인 경우는 높은 정의감 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방관적이나 일방적인 경우 낮은 정의감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7. 전체시민의식

학생들의 전체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3.52으로 나타났다.

<표-19> 개인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99	3.48	0.45	-1.67	0.0953
	여	221	3.56	0.49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73	3.55	0.47	1.63	0.1037
	초등학교 6학년	147	3.47	0.49		
성 적	상위권	71	3.75	0.49	10.27***	0.0001
	중상위권	107	3.57	0.46		
	중위권	168	3.50	0.46		
	중하위권	56	3.31	0.40		
	하위권	18	3.20	0.46		
용 돈	5천원 미만	160	3.55	0.44	0.29	0.8352
	5천원-1만원	101	3.50	0.48		
	1만원-2만원	101	3.50	0.50		
	2만원-3만원	39	3.52	0.52		
계		420	3.52	0.47		

*** $p<.001$

성별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와 학년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전체 시민의식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F=10.27$, $p<.001$) 사후비교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전체 시민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한달 용돈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한달 용돈을 많이 받은 적게 받은 전체 시민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20> 가정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 의식 분석 결과

구 분		N	Mean	SD	T(F)	p
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	3.50	0.37	4.31*	0.0140
	고등학교 졸업	173	3.44	0.47		
	대학교 졸업 이상	226	3.58	0.48		
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8	3.44	0.38	3.27*	0.0388
	고등학교 졸업	243	3.48	0.47		
	대학교 졸업 이상	149	3.60	0.49		
부 직업	판매 기술직	66	3.54	0.46	1.79	0.1476
	자영업	126	3.48	0.48		
	전문사무직종	151	3.58	0.47		
	기타	77	3.46	0.48		
모 직업	판매 기술직	45	3.49	0.42	2.24	0.0644
	자영업	105	3.47	0.52		
	전문사무직종	77	3.64	0.41		
	가정주부	143	3.54	0.49		
	기타	50	3.41	0.46		
거주지역	시	231	3.58	0.50	2.65**	0.0084
	읍·면	189	3.45	0.44		
지역환경	도시	231	3.57	0.50	2.42*	0.0160
	농·어촌	189	3.46	0.44		
형제자매 수	1명	24	3.45	0.47	0.56	0.6424
	2명	233	3.54	0.50		
	3명	128	3.49	0.44		
	4명	35	3.56	0.44		
양육 태도	일방적	31	3.23	0.45	10.01	0.0001
	방관적	40	3.27	0.48		
	협력적	292	3.57	0.46		
	전적 신뢰	57	3.61	0.44		
계		420	3.52	0.47		

* p<.05 ** p<.01 *** p<.001

아버지 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F=4.31, p<.05), 어머니 학력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F=3.27, p<.05)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와 어머니 직업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 모두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과 판매 기술직의 경우 시민의식이 다소 높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종과 가정주부의 경우 시민 의식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별 전체 시민의식 분석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2.65$, $p<.01$)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라 시민의식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환경별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2.42$, $p<.05$) 따라서 지역환경에 따라 시민의식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태도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F=10.01$, $p<.001$), 부모가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협력적인 경우는 높은 시민 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방관적이나 일방적인 경우 낮은 시민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의 민주시민 조사영역을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 정의감의 6개 하위 영역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표집학교는 제주도내 시·읍·면의 행정구역과 도시·농촌·어촌의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선정된 5·6학년 학생 42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 의식 6개 하위 영역별 조사 결과 ‘협동심(4.00) > 신의(3.66) > 정의감(3.59) > 타인존중(3.40) > 공익정신(3.30) > 준법정신(3.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 영역의 전체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전체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은 3.52로써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협동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인 제주의 ‘삼무정신’의 영향이 끼친 바가 크다고 보아진다. 반면 준법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법대로 살면 피해를 본다’는 어른들의 의식구조가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리고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6개 하위 민주시민 영역 중 협동심과 신의, 정의감은 높은 의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3개 하위영역은 높지 않은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개인별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공통된 흐름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은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고,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위권인 학생이 하위권인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달 용돈에 따른 전체 시민의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 용돈을 많이 받는 적게 받는 전체 시민의식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6개 하위 민주시민 영역중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에서는 전

반적인 민주시민의식이 더 높아져야 할 6학년이 5학년보다 낮고, 남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이 여학생보다 더 급속히 하향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보아진다. 곧 학년이 높고 사회화될수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혹이면 본 연구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나 맹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해 가정·학교·사회가 그에 따른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역행하는 민주시민의식의 구조를 시급히 되돌려 놓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가정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공통된 흐름은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사무직종에 근무할 때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크고 도시에 사는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다. 또 형제 수에 따른 결과는 의미가 없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방적·방관적일 때 보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 신뢰롭고 협력적인 가정,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부모를 둔 가정, 문화수준이 높고 큰 지역사회에 위치한 가정일수록 민주시민 의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가정의 제반 교육적 환경 여건들도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제언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몇 가지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제언해 본다.

첫째, 민주시민 교육은 그 사회에서 전개되는 민주화 의식이 충만되어 있을 때에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인 경우 대부분의 생활방법을 학교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써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교실현장에서의 교사의 지도유형은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유념하여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둘째, 민주생활이란 ‘자기 통제·자기 결정·자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학급회의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적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겠다.

셋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도덕교육은 민주시민 생활덕목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내면적인 가치가 형성되도록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하겠다.

민주사회는 민주시민이 만들어 간다. 민주시민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고 장려되어야 하며, 그러기에 초등학생 때 생활이나 의식을 보면 장차 이루어질 우리나라 민주사회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제주도내 초등학생의 시민생활과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설계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 가우디(주), 《왕따리포트》, 서울 : (주) 우리 교육, 1999.
- 곽병선, 《민주시민교육》,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경상북도 도덕과 연구회, 《도덕과 교육》, 1992.
- 경상북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집》, 대구 : 대창사, 1994.
- 고창근,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료》, 서울 : 교육부, 1993.
- 권오갑,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관수,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 서울 :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4.
- 김광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동일, 《시민사회의 문화적 기초》, 한국사회학 제20집, 1986.
- 김재복, 이경환, 허경철,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과학사, 1999.
- 김종성, 《민주주의와 학교 교육》, 서울 : 일신사, 1991.
- 김종철, 《학교 교육 정책 연구》, 서울 : 교육 과학사, 1989.
- 김윤희, 《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1.
- 김태훈, 《덕 교육론》, 서울 : 양서원, 1999.
- 남궁용권, 《신교육학 개론》, 서울 : 양서원, 1987.
- 민석홍, 《시민사회 성립 과정과 의의》, 사상계, 1966.
- 민준기(역), 《민주화와 교육-민주시민교육의 이상과 실제》,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 박용현, 《도덕과 교육》,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5.
- 신정현,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 탐구당, 1987.
- 안창호,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의식의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양호민(역), 《민주주의의 의미》, 서울 : 탐구당, 1972.

- 우혜정, 《교사·학생들의 국민윤리 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호, 《교육과 정치》, 서울 : 제일출판사, 1972.
- 이영기, 《산업사회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사회과학연구소, 1981.
- 이정식(역), 《민주주의의 모델》, 경기 : 도서출판 인산사랑, 1993.
- 정경진,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1968.
- 정세구, 《국민정신교육의 과제》, 서울 : 교육 과학사, 1985.
- 정세구, 《청소년 이념 연구》, 서울 : 배영사, 1988.
- 최상화, 《학생이 기대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최장집, 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 서울 : 사회비평사, 1995.
- 한승주, 《한국민주주의》, 서울 : 형설출판사, 1984.
- 허영식,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배영사, 1996.
- 한국교육개발원,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 MBC, 《5월 청소년 백서》, 2000.

[Abstract]

A STUDY on PUPILS' DEMOCRATIC CITIZENSHIP

—Centering on pupils in 5th and 6th grade in
Jeju do—

Yang, Kwan-Soo

Major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pervised by Professor Ko, Dae-Man

Our country is headed for democratic society. According to this, at school teacher educates children to be democratic citizens, but unfortunately it is true that we don't have statistic data of what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children have, So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pupils in Jeju area and break it down, and to get the basic data of educational improvement of democratic citizen for them.

With a view to the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for pupils, I was prepared for the questionnaires with six changing factors of subordinate independence, such as 'respect for other people, cooperative spirit, faithfulness, law-abiding spirit, spirit for public good and a sense of justice' and made a sample survey of 564 pupils in 5th and 6th grade among nine elementary school of Jeju area.

And then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as divided into two and broken down; one i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x, grade, academic achievement, the amount of allowance), and the other i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home characteristics (academic career of parents, occupation of parents, resident district, environment of resident district, the number of sisters and br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As a result, the breakdown of two divisions wa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six subordinate sec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showed that cooperative spirit (4.15) is highest and in order, spirit of justice (3.69), faithfulness (3.56), respect for other people (3.48), spirit of public good (3.42) and law-abiding spirit (3.26). And the average mark of six elements is 3.58 and it was somewhat high. As a result, I found a worrying problem that the higher the grade and socialization get, the lower morality gets.

Second, the result of the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data indicates that gender and grade have drawn no change of civic consciousness and pupils of high rank higher than those of low rank. And the results of analysing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student's allowance indicate that students are not influenced by the amount of their allowance.

And third, the result of the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home characteristics showed that pupils of parents' good educational background is higher than those of not so, pupils of white collar parents higher than those of not so, pupils of high cultural level and city area higher than those of not so, the number of siblings has no significance for the results, and pupils of home of parents' positive and 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higher than those of not so. In the light of this result, I reached a conclusion that all the conditions of education environment of home have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pupils.

<부록 1> 설문지

초등학생의 민주 시민의식 교육설계를
위한 기초 설문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학생 여러분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좀더 나은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단지 다만 학생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지는 연구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답변은 귀중한 연구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오니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양 관 수

■ 아래 문항은 학생 여러분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3. 학생의 학업성적은?

- ① 상위권 ② 중상위권 ③ 중위권
④ 중하위권 ⑤ 하위권

4. 학생 본인의 한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 ① 5천원 미만 ②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③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④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
⑤ 3만원 이상

5.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 ① 아버지 교육수준 () ② 어머니 교육수준 ()

6. 부모님의 직업은?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① 아버지 직업 () ② 어머니 직업 ()

- ① 단순노무직종 ; 단순 근로자, 선원, 행상, 수위, 청소부, 파출부 등
- ② 고용인·판매·기술직종 ; 점원, 이·미용사, 요리사, 정비사, 영업
용 운전기사 등
- ③ 자영업종 ; 자영농어민, 세탁소, 양복점, 개인택시 기사, 가게 주
인, 음식점, 숙박업소, 정비업소 등
- ④ 사무직종 ; 6급(계장) 이하 공무원, 군인, 회사원, 은행원, 교사
- ⑤ 전문직종 ; 교수, 약사, 의사, 회계사, 변호사, 과학자, 3급(과장)
이상 공무원 등
- ⑥ 가정주부
- ⑦ 기타
- ⑧ 무직

7. 학생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 ① 시 ② 읍 ③ 면

8. 학생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지역 환경은?

- ① 도시 ② 농촌 ③ 어촌

9. 학생 본인을 포함한 형제수는?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10. 자신의 부모님들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 ① 부모님은 나의 모든 일을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방
적으로 결정하시는 편이다.
- ② 부모님은 나의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나의 모든
일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편이다.
- ③ 부모님은 나의 모든 일을 나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편이다.
- ④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시고 나
를 믿어 주시는 편이다.

■ 다음은 학생 여러분들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 꼭 지키려고 한다.					
12	우리 사회에서 정한 법과 규칙은 지켜야 한다.					
13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14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	나는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돌려 준다.					
16	나는 교통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7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18	나는 공원에 놀러가서 놀던자리는 깨끗하게 치운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 지 않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다	그 저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9	아무리 양심적으로 물건을 팔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20	학급 회의를 할 때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21	나는 친구가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한다.					
22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힘을 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23	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24	나는 공부를 못하거나 약한 친구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다.					
25	나는 자라서 이웃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26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다.					
27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28	나는 도서관, 식당,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한다.					
29	나는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한다.					
30	나는 학교의 모든 물건을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겨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1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지적해 주거나 충고해 준다.					
32	나와 다른 사람이 의견이 다를때는 항상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해결한다.					
33	나는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린적이 있다.					
34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책임을 진다.					
35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36	나는 가족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한다.					
37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참지 못한다.					